

## 대의 김필순(大醫 金弼淳)

박 형 우\*

### 1. 서론

1886년 알렌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근대식 의학교육은 구체적인 성과 없이 1893년 내한한 에비슨에 의해 다시 시작되었지만, 이 당시의 교육은 현재 행해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도제식(혹은 임상형)이었으며,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교육연한이나 상세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기에 언제 어떻게 졸업시키느냐 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 모두에게 문제였을 것이다.<sup>1)</sup> 이런 상황에서 제중원 의학교에서 에비슨으로부터 몇 년 동안 의학교육을 받은 학생의 일부가 실제 의업에 종사한 적도 있었다.<sup>2)</sup> 또한 1899년 개교한 (관립)의학교에서 다수의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나, 이들은 임상실습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의학교에서 정규 1회로 졸업한 7명(김필순, 김희영, 박서양, 신창희, 주현직, 홍석후, 홍중은)이 우리나라 의학사에 우뚝 서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조선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면허 1-7번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한 기간 동안 이론 및 실제 경험을 쌓아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의 의과대학 졸업생과 비교해 전

혀 손색이 없는 실력을 쌓은 상태에서 졸업하였고, 따라서 완전한 한 의사로서뿐 아니라 교수로서 후진 양성이 가능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서양 의료선교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의 학을 비로소 우리의 힘으로 발전시킬 바로 그 출발점에서 있었던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첫 면허 의사 7명 중 가장 뛰어났으며 에비슨의 신임을 받아 단순히 환자만 보는 소의(小醫)로서의 교육뿐 아니라 많은 교과서 번역 작업을 통해 교수(教授)로서의 자질을 닦았고, 새 제중원(세브란스병원)의 건축 및 병원 급식 해결 등을 통해 병원 책임자(責任者)로서의 소양도 닦은 김필순을 통해 이들 초창기 선배 의사들이 서양의학의 도착화를 위해 바쳤던 노력과 그 성과를 알아보고, 아울러 1910년 일제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면서 김필순이 독립운동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 2. 가족 배경

김필순(金弼淳)은 광산(光山) 김씨이며, 1878년 6월 25일<sup>3)</sup> 황해도 장연군(長淵郡)에서 김성섬(金聖蟾)과 둘째 부인 순흥(順興) 안씨 안성은(安聖恩)(1858? - 1940. 1) 사이의 장남(長男)으로 태어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과 및 해부학교실

1) 박형우. 세브란스의학교 1회 졸업생의 활동. 연세의사학 2: 299-319, 1998.

2) Annual Report of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Sept, 1901.

3)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

났다.<sup>4)</sup> 김필순의 손녀딸 김윤옥은 그 집안이 장연에 정착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원래 이 김씨 집안은 (김필순의) 조부(祖父) 때까지도 서울에서 쟁쟁한 이름을 떨치던 명문 가문이었다. 그런데 당시 참판 벼슬을 지내던 조부는 부패한 정치 때문에 백성이 도탄에 빠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자진 정계에서 물러나 서울에서 380리 떨어진 황해도 장연군 대구면(大救面) 송천리(松川里; 속칭 소래)의 불타산(佛陀山)을 중심으로 세 형제가 낙향했는데, 조부의 형제 두 분은 불타산 뒤편에, 조부는 남쪽에 자리 잡았던 것이다.

조부는 개혁자적인 의지로 황량한 땅을 옥토로 만들어 큰 성과를 얻었다. 그리하여 송천리 일대의 임야와 토지는 전부 그의 소유로 되었고, 99칸 짜리 대 저택을 지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김 판서댁 혹은 김 좌수댁이라 불렀으며, 바로 이 집이 김필순이 태어난 생가(生家)였다.<sup>5)</sup>

김씨 집안이 터를 잡고 있던 소래에 김필순이 6살 때인 1883년 서상륜(徐相崙)·서경조(徐景祚) 형제가 이주해 왔다. 원래 평안북도 의주(義州) 태생인 이들은 1878년 인삼을 팔러 청나라 영구(營口)에 갔다가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했고, 서상륜은 1882년 세례를 받고 귀국하여 기독교 전교에 힘썼다.<sup>6)</sup> 그러다가 1886년 말 언더우드와 처음 만났고, 김필순이 10살 때인 1887년 언더우드는 처음으로 소래를 방문해 개종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다.<sup>7)</sup> 김필순의 집안은 새로운 서양 문물에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1895년 서씨 형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소래교회를 세울 때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였다.

김필순의 가계는 동생 김필례<sup>8)</sup>와 아들 김염의 전기<sup>9)</sup> 및 조카 김마리아에 관한 글<sup>10)</sup>에 비교적 잘 기술되어 있다. 김필순의 아버지는 첫 부인과의 사이에 윤방(允邦), 윤오(允五),<sup>11)</sup> 윤열(允烈),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고, 이어서 낳은 딸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딸아 이름이 없다. 김필순은 둘째 부인 안성은의 장남(長男)으로 태어났다. 김필순 아래로 딸인 구례(求禮)와 노득(路得)이 있었고, 이어 아들인 인순(仁淳), 딸인 순애(順愛)와 필례(弼禮)의 순서였다. 김필순은 10남매 중 5째로 태어났으나, 이들 가족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였다.

김필순의 집안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으며, 다수의 세브란스 출신 의사들과 인척 관계를 이루어 초창기 우리나라 의학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큰 형 윤방은 무장 김씨 김몽은(金蒙恩)과의 사이에 세 딸을 낳고 1895년경 세상을 떠났다. 그의 첫째 딸 함라(涵羅)는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남궁혁(南宮赫)의 부인이 되었다. 둘째딸 미염(美艷)은 세브란스 6회 졸업생 방합신(方合信)과 결혼하였다. 미염의 바로 아래 동생은 그 유명한 여성 독립운동가 마리아(瑪利亞)이다. 둘째 형 윤오는 1895년 언더우드로부터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sup>12)</sup> 서울로 올라와 동생 필순과 함께 세브란스병원 앞길에 「김형제 상회」를 설립해 하와이로 인삼을 수출하고 장릉을 짜는 일을 했는데, 이곳은 1907년 귀국한 안창호 등이 필순과 모여 나라의 장래를 논의하는 회합 장소로 제공되었다. 그러나 경영 미숙으로 이 상회가 망하자 용산에 제재소를 경영하기도 했다. 윤오는 서북학회(西北學會)의 발

4) 여기서. 교육의 길 신앙의 길. 김필례 그 사랑과 실천. 태광문화사, 1988, 23페이지.

5) 김윤옥. 김필순 박사 일대기(원고본). 김윤옥은 김필순의 장남 김덕봉(김영)의 막내딸, 즉 김필순의 손녀이다.

6) 이민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두레시대, 1998, 39페이지.

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1996, 243페이지.

8) 여기서. 앞의 책.

9) 스키즈키 쓰네카스(이상 옮김). 상해의 조선인 영화황제 김염. 실천문화사, 1996.

10) 나라사랑. 김마리아 특집호, 1979.

11) 기록에 따라 允五, 允禧 등으로 되어 있다.

12) 여기서. 앞의 책, 31페이지.

기인 및 총무로 활동했으며,<sup>13)</sup> 세브란스 3회 졸업생 고명우(高明宇)(1884. 3. 13 - 1950년 납북)를 사위로 맞이하였다. 셋째 형 윤렬은 똑똑했는데 과거에서 장원 급제를 한 후, 고향으로 내려오던 중 장티푸스에 걸려 불행하게도 여관에서 객사하고 말았다.

김필순의 첫째 여동생 구례는 서경조의 둘째 아들 서병호(徐丙浩)와 결혼하였다. 서병호는 상해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였으며, 그의 형인 서광호(徐光昊)(1880. 8. 30 - ?)는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이다. 둘째 여동생 노득은 양응수(梁應需) 목사과 결혼했다. 첫째 남동생 인순은 경신학교를 다녔는데 여름에 한강에 물놀이 갔다가 물에 빠진 9대 독자인 친구를 구하려다 익사하고 말았다. 셋째 여동생 순애(順愛)는 독립운동가 김규식(金奎植)과 결혼하였다. 원래 김규식은 순애와 혼담이 오간 적도 있었으나, 순애의 학교 동기생 조은수(趙恩受)를 부인으로 얻었다. 그러나 조은수가 건강이 악화되어 아들 하나를 남기고 사망하면서 유언으로 학교 동창생인 순애와 결혼할 것을 부탁하고 주위에서 강권함에 따라 순애와 1919년 재혼하게 된 것이었다.<sup>14)</sup> 순애는 1919년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 회장을, 1943년 한국 애국부인회 재건대회 주석을 역임하였다. 몽고의 고린(庫倫)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김규식을 만나기 위해 그의 부인이 아들 진동과 김규식의 사촌 누이동생 김은식을 대동하고 온 적이 있었는데, 이때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 이태준(李泰俊)<sup>15)</sup>(? - 1921)은 김규식의 사촌 누이동생과 결혼하였다. 막내 여동생 필례(弼禮)는 한국 YWCA의 창설자이며, 광주 수피아여학교와 정신여학교의 교장을 역임했으며, 1918년 6월 20일 세브란스 6회 졸업생 최영욱(崔泳旭)(1893. 12. 10 - 1950. 8. 30)과 결혼하였

다. 김필례와 최영욱은 결혼 직후 치치하얼에서 김필순을 돕다가 귀국했는데, 최영욱은 광주에 서석의원(瑞石醫院)을 개원하였다. 서석의원은 3·1운동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김마리아가 가져온 재일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와 격문 수 백부를 제작하는 장소로 활용되었고, 이 일로 김필례, 최영욱 부부는 일경에 체포되어 고초를 당했다. 최영욱은 해방 후 군정하에서 전라남도 협동지사로 일했으나,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1950년 8월 30일 공산군에 의해 총살되었다.

이와 같은 김필순의 가계에서 김필순, 서병호, 김순애, 김규식, 김마리아 등이 독립유공자로 국가에서 서훈을 받아 집안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흔치 않은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sup>16)</sup> 김필순은 이들 가족들에게 아버지와 같은 정신적 지주였다.

### 3. 기본 교육

김필순이 어렸을 때 사랑방 몇 칸은 서당 구실로 동네 아이들에게 개방되었다. 이곳에서 부친은 김필순 및 동네 청소년들을 모아 놓고 고명한 훈장을 모셔다가 천자문에서 동몽선습, 맹자, 공자에 이르기까지 한학을 가르쳤다.<sup>17)</sup> 1887년 언더우드가 소래를 처음 방문한 이후 김필순 집안은 서양 선교사들에게 사랑방을 제공하고 하인까지 몇 명 팔려주어 그들의 선교 사업을 도왔다. 때로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부흥회를 주선하기도 하였다. 김필순은 1894년 언더우드(H. G. Underwood)로부터 세례를 받았다.<sup>18)</sup>

1895년 어느 날 언더우드는 김필순 부모에게 '집에 붙들어 놓고 책임지고 공부시키겠다'고 요청하여,

13) 西北學會略史. 서북학회월보 1(2): 3-4, 1908.; 會事記要. 서북학회월보 1(6): 24, 1908.

14)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35, 51-52페이지.

15) 이태준에 관해서는 반병률.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2: 320-328, 1998을 참고할 것.

16) 김필순은 1997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서병호는 1968년 대통령 표창, 1980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을, 김순애는 1977년 독립장을, 김규식은 1989년 대한민국장을, 김마리아는 1962년 독립장을 각각 추서받았고, 이태준은 1980년 대통령 표창, 1990년 애족장을 추서받았다(대한민국 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17) 김윤옥. 김필순 박사 일대기(원고본).

18) Kim Kyu Sik. Dr. Kim Pii Soon. Korea Mission Field 7: 14-16, 1911.; 나라사랑. 김마리아 특집호, 1979, 97페이지에는 1895년 소래교회 봉헌 예배를 올리는 날 김필순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김필순은 서울에서 신식교육을 받게 되었다.<sup>19)</sup> 김필순은 언더우드 집에 머물면서 배재학당에 입학했다. 배재에 입학한 후 첫 여름 방학에 고향으로 내려 온 김필순은 어느 날 집안 고리짝 깊숙이 보관되어 있던 조상들의 옷들을 꺼내 태워버렸다. 이때 김필순의 형제들은 다 기독교를 믿고 있었으나, 어머니 안씨는 아직 전통적 제사 풍습에 젖어 있는 상태였다. 그런 어머니가 필순의 행동을 보고 조상에 불 낫아 없다며 몹저롭게 되었다. 그러나 자식들의 설득으로 어머니는 기독교를 믿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여전도사가 되었다.

김필순의 학창 시절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하루는 서울로 가서 공부에 열중하고 있어야 할 필순이 행실이 좋지 않은 어떤 여자와 사귀느라 공부는 팽개쳐두고 있다는 소식이 소래마을로 전해졌다. 김필순의 어머니는 매일 밤 돗자리와 빗자루를 들고 마을 뒷산에 올라가 기도를 올렸다.<sup>20)</sup> 어느 날 어머니는 기도 중 '네 아들을 내가 구원했으니,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뒤에 안 일이지만 참으로 공교롭게도 그 무렵부터 김필순이 마음을 고쳐먹고 학업에 열중하였다고 한다.<sup>21)</sup>

김필순과 같이 배재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중에는 후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많다. 김필순이 4학년이었던 1898년 1월 8일 현재 배재 협성회 회원으로 김필순 이외에 신흥우, 이승만, 주시경, 오공선, 남궁혁 등이 있었다.<sup>22)</sup>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영어를 잘 했는데 입학 6개월만에 신입생을 위한 영어교사로 채용되었다.<sup>23)</sup> 김필순은 남달리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특히 영어발음이 매우 좋았다. 그는 후에 예비슨의 통역을 하였고 의학교과서를 번역했으며 예비슨의 의학 강의 시간에 자주 통역했을 뿐 아니라 쉴즈와 함께 영어를 가르쳤다.<sup>24)</sup> 김필순은 4년 후 배재를 졸업하였으며, 세브란스 1회 졸업생 7명 중 김필순 외에도 김희영과 홍석후가 배재 출신이다.<sup>25)</sup>

#### 4. 제중원의학교 학생 시절

배재학당에서 학업을 마친 김필순은 1899년 제중원(濟衆院)에서 처음에는 셔록스(Sharrocks, A. M.)의 통역 및 조수로서 일하였다.<sup>26)</sup> 셔록스는 예비슨이 병가를 얻어 귀국했을 때 여의사 필드(Eva Field) 등과 함께 제중원 일을 맡고 있던 차였다. 1900년 10월 안식년에서 귀국한 예비슨은 한국 고전에 지식이 있고 영어를 약간 아는 젊은이를 찾고 있었고, 바로 김필순이 채용되어 예비슨의 통역(通譯) 겸 조수(助手)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08년 6월 세브란스를 1회로 졸업해 우리나라 최초의 면허의사 중 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비슨의 지도로 김필순은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성장하였다.

1886년 이 땅에 최초의 서양의학교육을 시작한 알렌과 유사하게 예비슨도 교육에 있어 언어(용어)에 큰 문제를 느끼고 있었다.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예비슨은 우선 자신이 고용한 김필순의 도움으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다른 학생들보다 영어를 잘 했던 김필순은 의학성 겸 예비슨의 통역 및 조수로서의 특수

19) 이기서, 앞의 책, 32페이지.

20) A Christian Korean celebration. Korea Mission Field 5: 206-208, 1909.

21) 이기서, 앞의 책, 36-37페이지.

22) 협성회회보, 제1권 제2호, 1898년 1월 8일.

23) 배재백년사 편찬위원회. 배재백년사(1885-1985). 학교법인 배재학당, 1985, 112-113페이지.

24) 이기서, 앞의 책, 32-33페이지; Avison OR. 구한말비록(하), 대구대학교 출판부, 52-53페이지.

25) 이들 모두 정규 졸업생은 아니다. 김희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적부'에 배재학당 출신으로 기록되어 있고, 1898년 1월 현재 협성회의 찬성회원이었다(협성회회보 제1권 제3호, 1898년 1월 15일). 홍석후는 1918년 명예졸업생으로 추대되었고, 1918년 3월 배재동창회 총회에서 의사원(議事員)으로 선출되었다(배재학보 제1호: 37, 1918).

26) Kim Kyu Sik, 앞의 글.

한 위치에 있었다. 에비슨이 학생들에게 그 동안 배운 정도에 따라 학년을 처음 부여한 1900-1년의 보고에 후에 같이 졸업한 박서양은 이름이 올라 있으나 김필순은 이름이 빠져 있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당시 김필순은 쉴즈 간호사와 함께 다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었다.<sup>27)</sup> 김필순에게 교과서 번역을 시키고 있던 에비슨은 더 나아가 그가 조만간 기초 학문을 다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 힘들었던 에비슨으로부터 부정기적인 강의를 받았다. 그리고는 틈틈이 약국 보조원, 간호부 혹은 외래 및 병원 보조원으로서 일했다. 전형적인 도제식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sup>28)</sup>

세브란스의학교 학생들은 1900-1년<sup>29)</sup>에는 필드 여의사로부터 산수(Arithmetic)를, 쉴즈(E. L. Shields)로부터 간호, 붕대 감는 법, 외과적 드레싱의 준비, 수술방 준비 및 관리, 기타 유사한 주제 등을, 에비슨으로부터 화학, 약물학 및 해부학을 배웠다. 1901-2년<sup>30)</sup>에는 에비슨으로부터 매주 한 번 화학을 배웠는데, 강의가 끝나면 실습을 했다. 실습에 쓰이는 기구는 다소 조잡했지만 과학의 원리를 학생들 마음에 심어주기에는 충분했다. 학생들은 이런 강의 내용에 큰 관심을 나타냈고, 학기말 시험 결과 많은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매우 잘 파악하고 있었다. 1903-4년<sup>31)</sup>에는 정규적으로 해부학, 화학 및 생리학 강의를 받았다. 1906년 초<sup>32)</sup> 현재는 해부학, 생리학, 화학, 세균학, 병리학 등의 기초 학문을 이수

받은 상태였고, 실제 내과 및 외과에서 다양한 임상 실습을 했다. 이때 학생들은 모든 종류의 작은 수술과, 외국인 선생의 감독 하에 독자적으로 절단술(amputation) 같은 일부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훈련되어 있었다.

에비슨은 한국에 나올 때부터 한국인 의사 양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고, 김필순은 에비슨의 이러한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킨 거의 유일한 학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에비슨은 김필순은 7명의 졸업생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평하였고,<sup>33)</sup> 따라서 김필순은 단순히 환자만 보는 소의(小醫)가 되기에 필요한 의학 지식의 습득에만 정열을 쏟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일이 그에게 주어졌다. 그는 많은 교과서 번역 작업을 통해 교수(教授)로서의 자질을 닦았고, 새 계중원(세브란스 병원)의 건축 및 병원 급식 해결 등을 통해 병원 책임자(責任者)로서의 소양도 닦았으며, 점차 기울어 가는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던 중 1907년 구한국 군대의 해산 과정에서 그가 후에 독립지사(獨立志士)로 나서게 된 결정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1908년 세브란스를 졸업했을 때 김필순은 이미 단순한 의사가 아니라 장차 우리나라의 의료를 짊어지고 나갈 대들보로 성장해 있었다. 이런 김필순의 다양한 모습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 교수로서의 훈련

에비슨이 김필순에게 시킨 일 중의 하나는 본격적인 의학 교과서 번역이었다.<sup>34)</sup> 따라서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은 강의의 상당 부분은 김필순이 번역한 책으

27) Report of Seoul Station. 1900-1901.

28) 김필순이 받았던 의학교육에 관해서는 김일순. 제중원에서의 초기 의학교육. 연세의사학 2: 261-285, 1998을 참고할 것.

29) Report of Seoul Station. 1900-1901.

30) Annual Report of Seoul Station to the Korea Mission, October, 1902.

31) Annual Report of Seoul Station Presented to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t its Annual Meeting, September, 1904 at Seoul.

32) Avison OR. Severance Hospital. Korea Review 6: 62-67, 1906.

33) A Christian Korean celebration. Korea Mission Field 5: 206-208, 1909에는 'He (김필순을 지칭함) is the first of the medical students who studied with Dr. Avison, ……' 으로 되어 있다.

34) 김필순과 에비슨의 교과서 번역 사업은 박형우. 우리나라 근대의학 도입 초기의 의학 서적 - 제중원·세브란스의 학교에서 간행된 의학교과서. 의사학 7: 223-238, 1998을 참고할 것.

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김필순은 번역 과정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다. 실제로 예비슨은 김필순이 조만간 다른 학생들에게 기초 학문을 가르칠 수 있을 것으로 일찍부터 기대했고,<sup>35)</sup> 이미 졸업 전에 저학년 학생들의 강의도 담당하였다.

처음으로 시작한 그레이 해부학 책은 1904년 9월 현재 번역이 끝났으나, 불행히도 원고가 화재로 소실되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출판된 것이 『약물학 상권 무기질』이었다. 이 책에 들어 있는 김필순의 서문을 통해 교수로서의 그를 살펴 볼 수 있다.

서

대대 세상 각종 학문이 귀하지 아니한 것이 없대 모두 사람의 몸이 깨끗하고 정신이 온전한 연후에야 배우기도 하고 쓰기도 하려니와 만일 몸에 질병이 있든지 정신이 온전치 못하면 비록 좋고 귀한 학문인들 어찌 배우며 어찌 쓰리오. 그런즉 신체의 질병을 덜며 물리치는 것은 의약이니 이로써 의약은 사람의 생활상에 업지 못할 것이라. 본 방에도 옛적부터 의약이 있대 서양과 같이 신체를 해부하고 검사하는 일이 없으므로써 집중에 밝지 못하고 화학을 알지 못하므로써 약재를 정밀히 제조치 못하며 그 성질을 확실히 깨닫지 못하여 오늘날까지 위험한 일도 불소하고 불행한 일도 적지 아니하대 사람마다 신수와 팔자를 한하며 혹 의술의 련속지 못함을 원망하나 본래 의학의 발달이 되지 못하여 소상한 의서가 없었으니 어디서 좋은 의원이 생기리오 다만 크게 탄식할 뿐이러나 다행이 서양으로 더불어 통상된 후에 비로소 영미국 예수교회에서 우리나라에 의술이 밝지 못하여 수다한 생명이 질병의 횡액을 비상이 당함을 듣고 거액의 지성을 허비하여 의사들을 파송하며 병원을 설치하고 약과 기계를 사서 중생의 질병을 덜어 그 몸을 강건케 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여 그 영혼을 영생하는 길로 인도할 새 영국의학박사 어비신 씨도 같은 목적으로 십여 년 전에 본 방에 나와 그 몸의 괴로움을 깨닫지 못하고 그 고명한 학술과 인자한 심성으로 주야를 불관하며 풍한 서습을 불피하고 귀천이 없

이 병든 자에게 약을 주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그 몸으로 하여금 평안함을 얻게 하며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또한 그 인자한 생각이 후생까지 미쳐 일변으로 본 방 청년들을 모아 의학을 가르칠 즈음에 필순도 그 문하에 들어오니 이때는 곧 주강생 일천구백년이라. 그 사무도 여간 도우며 의학을 공부할 새 어 선생의 높은 학식으로 교수하는 열성은 이로 치사할 수 없거니와 다만 우리나라 방언으로 번역한 서책이 없대 극히 편리치 못한지라 선생이 이를 심히 탄탄하여 비록 백망 중이라도 겨를을 타서 필순으로 더불어 이 책과 및 다른 두어 가지의 서를 간간 번역하여 매일 과정을 공급하더니 지금 오륙년 만에 무기약물학 일편을 이루어 출판하니 선생은 본래 본국에서도 의술의 고명한 명예가 있을 뿐더러 특히 제약사로 여러 해 경력이 있으며 그 본문대로 번역만 한 것이 아니오 이를 증감하며 그 장절의 차서를 받고 아 초학자의 과정에 적당토록 하였으나 본 방 방언에 약명과 병명과 및 의학상에 특히 쓰는 말 중에 없는 것이 만흠으로써 필순의 열은 학식과 용렬한 재주로 일본서 번역한 말을 빌어 쓰며 혹 새말도 지어 쓰매 그 문리가 바다를 건너는 돼지의 거동이며 발을 그린 뱀의 모양과 같이 순치 못하여 보시는 이의 정신을 괴롭게 할 염려가 적지 않으나 공부하시는 여러 학도들은 구절의 흠을 찾지 마시고 그 뜻을 삼고하여 아름답게 받으시면 다행이 총명의 발달이 만분지일이라도 될가 하나이다.

광무 구년 계동 김필순 서<sup>36)</sup>

현재 실물 확인이나 기록으로 김필순이 번역한 것이 확실한 것은 『해부학 권일』(1906년), 『신편 화학 교과서. 무기질』(1906년), 『해부학 권일』(1909년), 『신편 화학 교과서. 유기질』(1909년), 『외과총론』(1910년 10월) 및 해부생리학(Combined Anatomy and Physiology for Nurses), 『신편 화학 교과서. 유기질』, 내과(Practice of Medicine), 『신편 화학 교과서. 무기질』(1909년) 등이다. 1908년 졸업하기 전에 출판된 책에는 예비슨은 영국 의학박사,

35) Report of Seoul Station. 1900-1901.

36) 대영국 의사 어비신 번역. 약물학 상권 무기질. 일천구백오년 대한 황성제국원 출판.

김필순은 사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사인은 한자로 '士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현재의 의과대학생의 의미일 것이다. 졸업 후에는 '의사'로 표기되어 있다. 한편, 1910년 10월 마지막으로 출판된 『외과총론』에는 '의학박사'로 표시되어 있는데, 물론 이들이 현재와 같은 제도하에서 연구논문을 제출해 수여받은 학위는 아니지만, 졸업 후 몇 년의 연수 과정이 지나 충분한 경험이 쌓였다고 인정되어 의학박사로 호칭했던 것 같다.

이 책들은 모두 등사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배포되었고, 특히 다른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기관에도 무료로 배포되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김필순의 의학교과서 번역은 현재의 기준으로 대단한 업적이며, 다른 어느 자연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을 수 없는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의학 교과서를 처음으로 우리말로 번역한 김필순과 에비슨이 어떤 고생을 했을 것인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 병원 책임자로서의 훈련

에비슨은 김필순에게 병원 경영에 관해서도 가르쳤다.<sup>37)</sup> 그는 김필순의 역량을 알아보았고, 김필순이 자신의 뒤를 이어 세브란스의학교 및 병원을 충분히 맡을 수 있게 훈련시켰다. 우선 가장 골치거리였던 병원 급식을 김필순에게 맡기자, 그는 가족을 데려다 입원 환자에게 소정의 값을 받고 음식물을 제공하였다.<sup>38)</sup>

(김필레는) 1901년 서울에 올라가 있던 네째 오빠 필순의 지시에 따라 소래 마을을 떠났다. 필순은 제중원에 있으면서 의학서적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환자 진찰시 통역을 맡았다. 그러다가 자신도 의술을 조금씩 배워 진찰할 수 있게 되었다. 제중원은 차차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몰리어 환자도 들어가니 입원

환자들의 식사를 해결하는 일이 화급한 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래서 필순은 소래마을로 연락하여 가족들이 서울로 올라오도록 했던 것이다. 인순, 순애, 필순의 아내, 어머니, 필레 등 다섯이었다.<sup>39)</sup>

1900년 안식년에서 돌아와 세브란스가 기증한 돈으로 새 병원을 짓는 과정에서도 에비슨은 김필순을 데리고 일하였다. 물론 김필순이 설계사 고오든의 통역이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난방과 배관 작업에도 참여하였다.

교재의 한글 번역을 도운 의과 대학생 가운데 미스터 김(필순)이 '고오든' 씨의 통역인으로 수고했고, 모든 일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진척되었다. 드디어 난방과 배관 공사를 해야 할 순서가 되었다. 한국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어 '고오든' 씨와 미스터 김과 나 이렇게 셋이서 해야만 했다. 나는 경영해 오던 (구리개의) 병원에서 여러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끝나는 대로 공사장에 달려가서 두 사람과 같이 일을 했다.<sup>40)</sup>

### 독립운동가로서의 훈련

배재학당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김필순은 배재 협성회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1898년에는 도산 안창호도 협성회의 찬성회원으로 있었다.<sup>41)</sup> 따라서 김필순은 이때쯤부터 안창호와 친교를 맺기 시작한 것으로 추측되며, 1902년 가을에는 김필순을 초청인으로 안창호가 구리개 제중원의 구내에서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하였다.<sup>42)</sup>

김필순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었던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져 외교권이 박탈된 조선의 국운이 기울어 가고 있었다. 이 시기에 서북학회(西北學會)의 발기인으로 활동한 형 윤오의 영향으로 김필순도 서북학회에 가입하여 회관 건축위원 등으로 활동했다.<sup>43)</sup> 착

37) Kim Kyu Sik. 앞의 글.

38) Annual Report of Imperial Korean Hospital, Seoul, Korea, Sept. 1901.

39) 이기서. 앞의 책, 42-43페이지.

40) Avison OR. 구한말비록(하), 대구대학교 출판부, 126페이지.

41) 협성회회보, 제1권 제1호, 1898년 1월 1일.

42) 윤병석·윤경로. 안창호 일대기. 역민사, 1995, 38페이지.

실한 기독교인으로 항상 정의감에 불타 있었던 그가 독립운동에 결정적으로 헌신하게 된 것은 1907년 8월에 일어난 대한제국 군대의 강제 해산과정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1907년 구한국 군대의 해산은 민족의 분노를 극에 달하게 하였다. 보병 대대 장병들이 시가전을 벌이던 날 필레는 둘째 오빠 윤오 집에 있었다. 필레는 필순의 집에 있는 어머니 안씨가 걱정이 되어 필순의 집으로 찾아가는 길에 길 위에 감물처럼 흐르는 것이 알고 보니 온통 핏물이었다. 필레가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는 필순의 집에 다다랐을 때 세브란스 병원도 아수라장으로 변한 뒤였다. 세브란스 병원 안은 부상자와 시체들로 가득했다. 의사와 간호원들은 소달구지에 적십자기를 달고 연신 환자들을 날라 오고 있었다. 필순은 그날 하루 종일 정신없었다. 밀려드는 환자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 없었다. 가족들도 그날은 늦게 서야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는 점심을 먹고 있는 가족들에게 달려와, '어머니 일손이 달려요. 부상병 간호와 치료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시집도 안간 양가집 규수가 아무리 부상병이라고는 하나 남정네들 간호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어머니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걸 시시콜콜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필순은 마음이 다급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야속하기도 했다. 필순이 그리스도의 침사랑 실천까지 들먹이자 그제서야 어머니는 마지 못하는 체하며 집안 처녀들이 부상병을 간호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리하여 함라, 미염, 마리아와 필레, 필순 이렇게 다섯은 다친 군인들을 밤낮 가리지 않고 정성껏 돌보았다. 필레는 열흘 동안 세브란스 병원에서 부상병 간호를 했다. 밤에는 특히 부상병들의 신음소리로 아비규환이었다. 필순의 조카인 마리아가 뒷날 항일애국운동, 독립운동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릴 수 있게 된 것도 아마 이 세브란스 체험에 크게

힘입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sup>44)</sup>

김필순은 망해 가는 나라를 안타까워하며 안창호, 양기탁, 신채호, 이동휘, 김구 등이 1907년 9월 조직한 비밀정치결사 신민회(新民會)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다.<sup>45)</sup> 신민회에서는 본국을 떠나 중국령의 압록강 상류 복안 통화(通化)에 독립군 기지를 세운다는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었다. 신민회는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서울역 앞)에 있는 김필순의 집에서 회의를 연 일도 있었다. 또 김필순은 의형제를 맺은 안창호에게 김형제 상회의 위촉을 접빈실로 제공하여 각지로부터의 대표들이 회합을 갖고 대책을 논의하는 장소로 활용케 하였다. 이 당시 정운복(鄭雲復)<sup>46)</sup>이란 친구는 김필순에게 '자네는 국내에서 썩을 인물이 아니니 해외로 나가 살게' 라고 말했다고 한다.<sup>47)</sup>

#### 4. 세브란스의학교 교수

1908년 6월 3일 세브란스의학교를 졸업한 김필순은 독립운동을 위해 1911년 12월 31일 조국을 떠날 때까지 에비슨 교장의 전폭적인 후원에 힘입어 학교 발전은 물론 서양의학의 토착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였다. 이미 졸업 전부터 후배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고, 병원 경영에 관해서도 에비슨으로부터 특별히 사사받은 그에게 많은 역할이 주어졌던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졸업 후 그의 활동은 당시 선교부에서 월간으로 발행하던 『The Korea Mission Field』에 일부 기록되어 있다. 특히 1911년 1월호는 그의 사진을 표지에 넣고 후에 그의 매제가 된 김규식(金奎植)이 쓴 글을 실고 있다. 김필순은 병원 일로서는 졸업 직후 병동(病棟)과 외과(外科)의 부의사(assistant physician)를 시작으로, 1911년에는 외래 책임자가 되었

43) 會事要錄. 서북학회월보 1(2): 41, 1908.

44) 이기서. 앞의 책. 56-59페이지.

45) 반병률.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의학사학 2: 320-328, 1998.

46) 형 윤오와 함께 서북학회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서북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會報. 서북학회월보 제1호 41쪽, 1908.)

47) 나라사랑. 김마리아 특집호, 1979, 101페이지.



다. 아울러 졸업 직후 의학교의 교수로 임명되었고 1910년에는 의학교의 책임자(현재의 교무부장에 해당하며, 원문에 Manager 혹은 Director로 되어 있다)로 임명되었다.<sup>48)</sup>

1910-1년 기록<sup>49)</sup>에 의하면 그는 하루 3-4시간 강의했는데 해부학과 생물학을 담당하였고, 생리학은 피터스 부인(즉 여의사 필드)과, 위생학과 외과학은 에비슨 교장과 분담하여 강의하였다. 한편 간호원양성소의 교수로도 활동했는데, 1908-9년 간호원양성소에서 그가 번역한 해부생리학 교과서로 강의하였다.<sup>50)</sup> 1911년 6월 2일의 제2회 졸업식에서는 부의장(associate chairman) 자격으로 참석하였다.<sup>51)</sup> 이와 같이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되어 온 세브란스의 운영이, 에비슨이 평소에 생각하던 대로 김필순으로 대표되는 한국인 의사로 많이 이양되었다. 에비슨의 꿈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졸업 후 많은 일을 하면서 그래도 견딜 만했던 김필순에게 1910년 8월의 한일합방은 큰 충격을 주었다.

## 5. 중국으로의 망명

졸업 전부터 신민회에 가입하여 비밀리에 독립 운동에 적극 참여하던 김필순이 한일합방의 충격 속에 있을 때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큰 시련이 닥치고 말았으니, 이것이 소위 105인 사건이었다. 1911년 9월 총독부는 신민회 중심 멤버를 포함한 항일지식인 7백 여명을 검거 구속하여 105인에게 유죄를 언도하였던 것이다. 신민회에 대한 일제 검거를 사전에 안 김필순이 세브란스 병원에 한 통의 편지를 남겨두고 모습을 감춘 것은 1911년 12월 31일이었다.<sup>52)</sup>

이때 김필순은 2회 졸업생 이태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김필순이 먼저 망명하고 이태준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다음 뒤따라가기로 하였던 것이다. 김필순은 '신의주에 난산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있어 전보로 내게 왕진을 요청하는 까닭에 외출한다'는 쪽지를 남기고 경의선 열차에 올랐다. 김필순을 배웅하고 병원으로 돌아온 이태준은 김필순과 자신이 중국으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병원 내에 퍼져 있는 사실을 알고 서둘러 망명길에 올라 중국의 남경으로 향했다.<sup>53)</sup> 이날 이후 김필순은 다시는 고국 땅을 밟은 일이 없었다.

'가장 중요한 한국인 교수(김필순)의 손실(망명)'은 에비슨에게 큰 슬픔 뿐 아니라 일생에 있어 큰 손실을 안겨 주었고, 마침 학교 건물의 신축과 맞물려 의학교는 예상보다 길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sup>54)</sup> 우리나라 의학계는 졸지에 대들보를 잃게 된 것이었다. 이때 김필레는 오빠의 격려에 힘입어 일본에 유학하고 있었다.

필레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김필순으로부터 보내지고 있던 학비가 중단되었다. 오빠가 소위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 행방불명된 것이었다. 105인 중에서 핵심 주동 세력이 김필순의 집에서 모였다고하여 일경은 김필순을 잡아들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김필순은 하는 수 없이 신의주에 있는 세브란스 분원에 출장간다는 말을 남긴 채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사실 그는 서간도 통화현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다.

어느 날 일본에 있는 김필레에게 뜻하지 않은 손님이 새벽에 기숙사로 찾아와 허리춤 속에 감추어 온 하얀 종이로 끈 새끼를 꺼내어 김필레에게 건네주었다. 새끼

48) Kim Kyu Sik. 앞의 글.

49) Report of the Severance Hospital Plant. Seoul, Korea. For the year 1910-1911.

50) Shields ES. Nurses Training School. Korea Mission Field 5: 84, 1909. 김필순은 'D. Kimber'가 지은 'Anatomy and Physiology for Nurses'를 번역해 만든 교과서로 강의하였다.

51) Korea Mission Field 7: 210, 1911.

52) 반병률. 세브란스와 독립운동. 연세의사학 2: 320-328, 1998; 김윤옥에 의하면 김필순은 일본인 형사 한 사람이 맹장염에 걸렸을 때 이를 수술해 준 적이 있는데, 이 형사가 김필순에게 급히 피하라고 알려 주었다고 한다.

53) 반병률. 위의 글.

54) Severance Hospital, Seoul. Korea Mission Field 8: 273-274, 1912.

를 풀어보니 그것은 종이 조각마다 순서를 적어 넣은 편지였다. 편지의 내용은 대충 이러했다.

‘필레 동생 보아라. 내가 긴 말을 자세히 적어 보내지 못함이 서운하나 지금 형편으로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국내의 일로 일경에 쫓기는 몸이 되어 이곳 서간도로 왔다. 이곳에서 난 내 인생을 개척할 생각이다. 난 이곳에서 지금까지 꿈꾸어 오던 이상촌을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독립의 기틀을 닦고자 한다. 필레야. 넌 이곳으로 와 그 동안 배운 지식을 가지고 교육을 맡아주어야겠다. 편지 전해준 분을 따라 귀국하기 바란다. 귀국 즉시 가족들을 데리고 서둘러 서간도로 오기 바란다. 이만 충충.’

귀국한 필레는 어머니의 강한 뜻을 꺾지 못하고, 언니 김순애와 필순의 가족들 집을 챙겨 주고 서간도로 들어가는 가족들 전송만을 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sup>55)</sup>

김필순은 통화에서 병원을 열어 얻은 모든 수입을 조선독립군의 군자금으로 바쳤다. 통화에는 신민회의 이회영 등이 건설하고 있던 조선독립군 기지와 조선인촌이 있었다. 1912년 3월 8일 김필순은 미국의 안창호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는데, 1911년 청조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을 세우는 계기를 만든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위생대(衛生隊)로 일하기 위해 건너갔다고 적고 있다.<sup>56)</sup> 조국을 잃은 당시 조선 청년들에게는 신해혁명에 대한 소식이 감명 깊게 들려왔고, 그 영도자 손문(孫文)은 동경의 대상이었다.<sup>57)</sup>

떠나신 후 청국 선인현에 편지 밧사옵고 또한 런던서 붓힌 순의한테 온 엽서밧아 그까지는 알었사오나 그후로는 아모 말도 듯지 못하오니 심히 궁금하옵나이다. 弟는 작년 십이월에 청국 혁명전쟁에 위생대로 종사코 저하며 건너왔삽더니 지금 전쟁은 정지되어사오나 도망하여온 사람이 다시 도라갈 수도 업사옵고 또한 이곳

형제들이 이곳에 잇서 일을 좀 보와 달라하올 뿐더러 와서 멧칠 지내며 정형을 살펴겡는 즉 이곳 건너 오는 사람은 매일 수십명씩 남부여대하고선 속히 드러오는데 전쟁시키는 일이며 교육이며 기타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하는 이는 몇 명되지 못하니 말도 못하는 사람들이 드러와서 도로에 방황하는 형상은 참아 못보겡소이다. 제는 아직 몇 해던지 이곳에서 일을 좀 도으려 하는데 자금이라는 것이 한푼도 업사오니 민망하옵나이다. 이곳서 일을 주장하는 이는 이동녕씨와 이회영씨인데 인심이 잘 도라가지 아니하는 모양이오니 민망하옵나이다. 제의 집 식구는 오는 육월 즈음 이곳으로 다려오려 하나이다. 유참형은 지나간 십일월에 잡혀 갓쳤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못하옵고 이형은 지금까지 아경에 잇다 하노이다. 이위렴씨는 수일 전에 술권하여 가지고 이곳에 드러 왔나이다.

이 편지 보시고 곳 회답하시면 다시 세세한 말씀하오리다. 부인께 문안하옵나이다.

1912년 3월 8일 김필순 弟 배상

필레의 언니 김순애는 필순의 어머니, 아내, 네 명 아이들을 데리고 통화로 들어갔다.<sup>58)</sup> 그러나 통화가 점차 일제의 영향권에 들며 압박이 심해지자 김필순은 1916년 몽골 근처의 치치하얼(齊齊哈爾)로 도피하였다. 이곳에서 김필순은 병원을 개설하고, 땅을 구입하여 평소 꿈꾸던 조선인을 위한 이상촌 건설을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상황을 조선족 학자 현용순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김필순은 토지 구입을 위해 중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한다. 땅을 구입한 것은 통화에서 멀리 떨어진 몽골 인근의 치치하얼에 이상촌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필순은 의원을 열고 어머니와 아내가 빈분을 지도하고 원

55) 이기서. 앞의 책. 77-79페이지.

56) 김필순이 안창호에게 보낸 1912년 3월 8일자 편지. 도산 안창호 자료집(2), 독립기념관, 1991

57) 이정식. 김규식의 생애. 신구문화사, 1974, 41페이지.

58) 'What are the graduates of the Severance Medical College doing? Korea Mission Field 18: 159-160, 1922' 에는 김필순이 중국군의 군의관으로도 활동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했다. 또한 신혼이었던 김필레, 최영옥 부부도 와 최영옥은 의원에서 일하고 김필레는 농민교육에 종사했다. 김필순의 목적은 중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조선 청년을 이 이상촌에 모아 독립군 양성의 거점으로 삼으려는 것이었다.<sup>59)</sup>

오빠를 도와 치치하얼에서 잠시 신혼 생활을 한 김필레는 전기에서 그곳에서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김필레가 최영옥과 결혼할 무렵(1918년) 김필순은 치치하얼에서 130여 리가 넘는 땅을 사서 이상촌 건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중이었다. 그는 러시아제 농기구를 구입하고 동포 빈농 30가구를 받아들였다. 김필순은 병원 일에 바빴음으로 형 윤오가 감독 일을 하였다. 선생의 어머니 안씨도 이곳으로 와 일을 함께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흙벽돌을 직접 찍기도 했다. 필순은 이곳에다 이상촌을 세우고 중국 일대에 흩어져 있던 애국 청년들을 이곳으로 규합 독립군을 양성하기로 했다. 김필레가 최영옥과 결혼했다는 소식을 알리자 김필순은 김필레 부부에게 치치하얼로 들어와 같이 일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최영옥은 처남의 제의에 선뜻 응하고 치치하얼로 이사하였다. 최영옥은 병원 일을 주로 도왔다. 그러나 김필레가 임신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 부부는 전라도 광주로 귀국하였다.<sup>60)</sup>

한편 김필순의 손녀 김윤옥은 치치하얼에서의 생활에 대해 집안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흑룡강에도 그 당시 한국에서 망명해 온 독립군들이 많이 있어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아들이 말을 타고 주로 밤에 들어 닥치면 집안에 아이들은 자다 말고

모두들 방에서 쫓겨났고, 아이들은 부엌 아궁이 앞에 모여 광솔로 불을 질러 그 조그만 불길로 추위를 달래곤 했고, 큰 남자 아이들은 아침에 나가 까마귀를 잡아 그들에게 대접하곤 했다.

후에 김필순의 장남 덕봉도 의사가 되었는데, 부인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자랄 때 돈 잘 버는 아버지를 두었지만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고 배가 고프 때마다 '나는 이 다음에 돈을 벌면 먼저 우리 식구들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남을 돕겠다'고 어릴 때 결심했었다고 했다.<sup>61)</sup>

김필순은 1919년 하난사(河蘭史)가 황제의 밀사로 갈 때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었다고 한다.<sup>62)</sup> 그러나, 김필순은 애석하게도 일제의 특무요원으로 생각되는 이웃 일본인 의사가 전해준 우유를 먹은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어 1919년 음력 윤7월 7일 먼 이국 땅에서 영면(永眠)하고 말았다. 당시 상해에서 발행되던 『獨立』은 “醫學博士 金弼淳 氏는 黑龍江省에 在하여 吾族의 將來를 爲하여 開拓에 努力하다가 陰曆 7월 7일에 不幸히 永眠하고”라고 유일하게 그의 사망 기사를 실고 있다.<sup>63)</sup>

김필순이 사망하던 정황을 막내딸 김로는 생전 어머니로부터 들은 말씀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통화에서 의원을 연 아버님은 수입의 전부를 조선독립군에 바쳤다. 우리는 치치하얼 북관악 가호동 3호에 살았다. 아버님이 통화에서 도망해 온 다음 조선독립군은 전부 파괴되고 독립군 전대원이 감옥에 들어갔다. 1919년 어느 날 아버지는 의원의 간호부로부터 한 봉지의 우유를 받았다. 간호부가 말하기를 동료인 일본인 내과의사가 '김 선생은 위급한 환자 치료로 피로한데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않으니 이것을 마시도록 주시오' 하고 말하여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렇지만 김필순은

59) 스텔라 쓰네카스(이상 옮김). 앞의 책. 75-76페이지.

60) 이기서. 앞의 책. 94-97페이지.

61) 김윤옥. 김필순 박사 일대기(원고본).

62) 나라사랑. 김마리아 특집호, 1979, 101페이지.

63) 兩志士의 長逝. 獨立, 제18호, 1919년 10월 7일.

우유를 마신 직후 기분이 나빠져 그 간호부의 부축을 받아 집에 돌아왔는데 설사는 멈추지 않았다. 다음날에는 말하는 것도 불가능해졌기에 간호부는 일본인 내과 의사에게 왕진을 부탁했다. 일본인 의사는 암염으로 만든 알약을 뜨겁게 해서 김필순에게 먹였는데, 김필순은 배가 시커멓게 변하고 결국은 사망하였다. 조선인 간호부는 대성통곡하며 울었다. 김필순 사망후 일본인 의사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는 틀림없는 일본의 특무 요원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화의 동지가 감옥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김필순을 방문할 무렵 그 일본인 의사는 김필순의원에 모습을 나타냈고 사망과 함께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이다.<sup>64)</sup>

1919년 김필순이 세상을 뜨자 9식구의 대가족은 갑자기 생활난에 부딪혔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열었던 진료소의 간호부, 조산부로, 둘째는 진료소의 견습 의사로 일했다.<sup>65)</sup> 게다가 일본 영사관에서는 일본군을 파견해 집안을 수색했는데 다행히 김필순이 께짜 깊숙이 감추어 두었던 비밀서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비밀 서류란 20여명의 혁명지사들이 서명한 '조선 독립운동서약서'였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 학무총장이었던 김규식의 부인 김순애는 오빠의 부음에 접하고 치치하얼에 갔다가 일본 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신변의 위험을 느껴 중국 관현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상해로 탈출해 왔다.<sup>66)</sup>

한편 김필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막내 매제 최영옥은 치치하얼로 가서 필순의 가족들을 광주로 데려오자고 했지만, 김필레는 장남 덕봉(김영, 1903-1937)의 교육만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그의 교육만을 맡았다. 김필레는 덕봉이를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의사를 만들어 볼 심산으로 세브란스의전에 입학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의전 입학은

뜻하지 않은 장애가 가로막고 있었다. 김필순이 세브란스에 재직하고 있었을 때 독립운동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불온사상자의 자녀로 분류되어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었고, 설령 입학허가가 나더라도 덕봉이가 중국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에 일본어로 하는 강의를 제대로 소화해 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김필레는 하는 수 없이 산동의대에 입학시켰다가 나중에 봉천의대에 편입시켜 졸업할 수 있게 해주었다.<sup>67)</sup> 의과대학을 졸업한 김덕봉은 1929년부터 1931년까지 세브란스병원에서 수련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당직의사로 근무하였고, 나중에 산부인과 수련을 받았다.<sup>68)</sup> 수련을 끝낸 후 김덕봉은 캐나다 선교회가 운영하는 간도 용정의 제창병원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덕봉의 후손들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둘째 아들 김덕호(김억, 1908-1983)는 치치하얼, 하르빈, 길림성 등에 거주하였다. 셋째 아들 김덕린(김염, 1910-1983)은 1930년대 중국 영화계에서 활동하여 '상해(上海)의 영화황제(映畫皇帝)'라는 호칭을 얻었으며, 그에 대한 전기도 있고,<sup>69)</sup> 1996년 4월 28일에는 KBS의 일요스페셜에서 「상해의 영화황제 김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바 있다. 넷째 아들 김덕상(김강, 1911-1984)은 해방 후 한국으로 귀국했다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다섯째 아들 김덕호(1914-1936)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려진 것이 없고, 여섯째 아들 김위(1915-?)는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총장을 역임했고 해방 후 북한으로 귀국해 번역국 차장이 되었다. 막내 딸 김로(1919-)는 현재 북경에 살고 있으며, 딸인 중의(中醫) 초해영과 함께 1998년 4월 10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주최한 '광혜원 개원 113주년 및 한국 최초 의사 배출 9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sup>70)</sup>

뒤늦게나마 김필순은 1997년 독립유공자로 건국

64) 스희키 쓰네카스(이상 옮김). 앞의 책. 83-84페이지.

65) 위의 책. 85페이지.

66) 獨立, 1920년 1월 8일.

67) 이기서. 앞의 책. 106-107페이지.

68)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제12호, 1929, 71페이지 ; 소식란. 세브란스교우회보 제14호, 1931, 25페이지.

69) 스희키 쓰네카스(이상 옮김). 앞의 책.

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았다.<sup>71)</sup>

## 6. 맺음말

세브란스 제1회 졸업생인 김필순은 우리나라 근대 서양의학의 도입사에서 큰 역할을 수행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에도 큰 족적을 남긴 인물이다. 그리고 그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기독교적인 배경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김필순은 황해도 장연 출신으로 이곳은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처음 뿌리를 내린 곳이며 이곳에서 배출된 인물들은 한국의 기독교사뿐만 아니라 한국 근대사의 주역으로 활동했다. 김필순 또한 이러한 인물 중의 하나로 그의 생애는 국내에서 서양 의학을 정착시키기 위해 활동한 시기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에서 활동한 시기로 나눌 수 있다.

배재학당을 나온 김필순은 탁월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당시 제증원에서 일하던 예비슨의 통역 겸 조수의 역할을 수행했고, 외국어로 된 의학교과서를 우리말로 옮기는 데 큰 공헌을 했다. 그가 번역한 책들은 전혀 다른 체계의 서양 의학을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 동안 합당한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가 수행한 이러한 작업의 의의는 단순히 의학교과

서를 번역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양과학의 수용사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책들이 모두 한글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그가 번역한 의학서들은 우리나라의 근대 서양의학 수용사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상징적인 학술적 업적으로 기념되어야 할 것이다.

예비슨 교장의 총애를 받으며 장차 세브란스를 맡을 인물로 기대받던 김필순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라는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성취에만 안주하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그는 이로 인해 조국을 떠나 중국으로 망명했으며 거기서도 계속적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만주의 통화에서, 다음에는 치치하얼로 옮겨 이상촌 건설을 꿈꾸며 동포를 돕고 독립운동을 했던 김필순은 결국 그의 이러한 행적을 추적하던 일본군 특무요원에 의해 1919년 독살당하고 말았다.

격동기에 태어나 근대 의학을 토착화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으며, 또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김필순은 진정한 의미의 대의(大醫)였던 것이다.

**색인어 :** 김필순(金弼淳) · 대의(大醫) · 세브란스의학교 · 예비슨 · 독립운동

70) 연세의료원 소식 367호, 1998년 4월 20일자.

71) 대한민국 독립유공인물록, 국가보훈처, 1997, 14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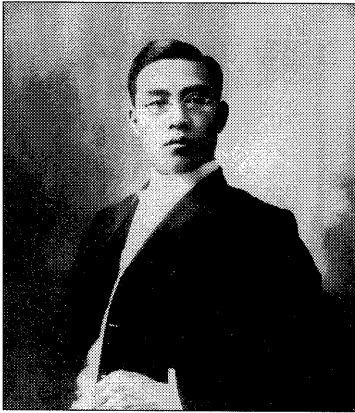


그림 1. 김필순 독사진. 안창호의 잘 알려진 독사진과 구도가 매우 유사해 비슷한 시기에 같은 사진관에서 촬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중국에서의 김필순(연도 미상). 아래줄 오른쪽부터 김필순, 임종건, 뒤줄 오른쪽부터 김순애, 김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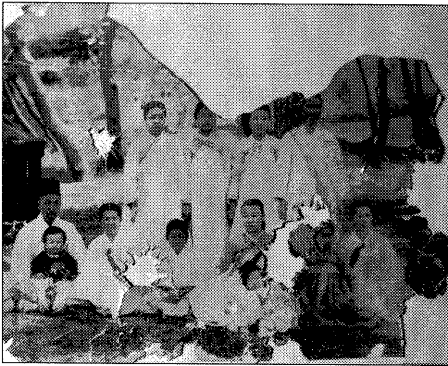


그림 3. 김필순의 가족. 아래줄 오른쪽부터 김필순, 김필순 부인, 김필례, 김구례(서옥윤을 안고 있음), 김일, 김윤오 부인, 김윤오(김필순의 장남 덕봉을 안고 있음), 뒷줄 오른쪽부터 안성은, 김함라, 김순애, 김세라.



그림 4. 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부터 김필순, 노백린, 윤웅렬, 아래줄 오른쪽부터 김마리아, 김순애, 한 사람 건너 김필순 부인(장남 덕봉을 안고 있음), 김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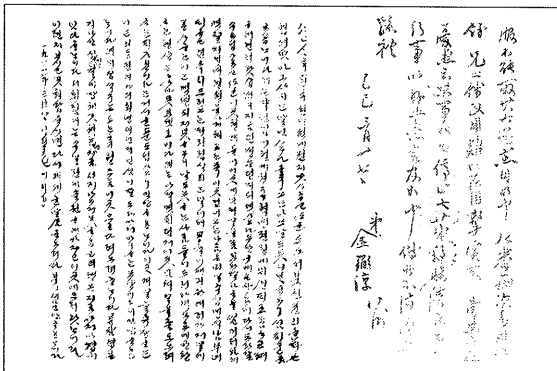


그림 5. 김필순의 친필. 왼쪽은 1912년 중국 통화현에서 김필순이 미국의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오른쪽은 1905년 김필순이 가족에게 보낸 편지.

= ABSTRACT =

## **Kim Pil Soon, A Great Doctor**

PARK Hyoung Woo\*

Kim Pil Soon was born at Sorae Village of Hwang Hye Province, the birth place of the Protestantism in Korea. He was brought up under the strong influence of Christianity and received modern education at Pae Chae School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 of Rev. Underwood. In 1899, Kim Pil Soon, who had been working at Je Joong Won as an assistant and interpreter of Dr. Sharrocks, was employed by Dr. Avison to help preparing medical textbooks and asked to participate in the medical education.

He acquired medical knowledges through his work of translating various medical texts, and which enabled him to teach other medical students. He participated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Hospital, taking charge of the provision of meals for in-patients as well as directing the construction of Severance Hospital buildings. And his experience of treating soldiers wounded during the turmoil of the forced dismissal of the Korean Army by the Japanese led him to reflect seriously on Korea's fate in peril. In addition, he became a member of Sinmin Society, a secret political association, to engage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1908, Kim Pil Soon graduated from Severance Hospital Medical School as one of the first seven graduates. On graduation, he was appointed as a professor and took the charge of school affairs in 1910. At first, he worked as an assistant physician of ward and surgery, then he took the responsibility of outpatient clinic in 1911. But suddenly, in December 1911, he exiled to China to escape from the Japanese police who was in pursuit of him on account of his involvement in the so-called 105-Person Affair, a fabricated affair served as a pretext for the persecu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He continued the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form of an ideal village movement and training the Independence Army. In 1919, however, he was poisoned to death in a mysterious way.

Kim Pil Soon dedicated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that demands personal sacrifice: giving up his prospective career as a doctor, professor, and hospital administrator. He no longer remained as an ordinary clinician who treats only diseased persons, but transformed himself to the Great Doctor, a time-old ideal type of doctor in the East Asian countries who treats and cures the diseased nation, by dedicating himself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KEY WORDS** : Kim Pil Soon, Great Doctor, Severance Hospital Medical School, Dr. Avison, Independence Movement

---

\* *Department of Medical History and Anatom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